공동육아(돌봄공동체) 선진사례 조사
국외출장 결과보고

2019. 12.

목 차

Ⅰ. 출장 개요 ····· 1

Ⅱ. 주요 활동 ····· 2

Ⅲ. 종합평가 및 향후전망 ····· 20

Ⅰ. 출장 개요

□ 목적

○ 덴마크 및 핀란드의 공동육아 사업 및 가족 서비스 운영, 지역사회 돌봄 현황을 조사하여 공동육아나눔터 및 돌봄공동체 지원 정책 개발에 활용

□ 방문국 및 방문기관

○ **[덴마크]** 덴마크 아동교육부 및 부모놀이터, 아동문화센터

○ **[핀란드]** 헬싱키 교육부 및 부모협동조합 보육시설

□ 출장자 : 총 5명

○ 여성가족부(4명) : 오○○(가족정책과 사무관), 우○○(가족정책과 주무관), 진○○(가족지원과 주무관), 이○○(가족문화과 주무관)

○ 한국건강가정진흥원(1명) : 박○○(서비스혁신단 단장)

□ 주요 일정

일정	날짜	일 정
1일	11.25.(월)	ㅇ 이동 (서울 → 코펜하겐)
2일	11.26.(화)	ㅇ 코펜하겐 부모놀이터 ㅇ 덴마크 아동교육부
3일	11.27.(수)	ㅇ 코펜하겐 아동문화센터
4일	11.28.(목)	ㅇ 이동 (코펜하겐 → 헬싱키)
5일	11.29.(금)	ㅇ 부모 협동조합 보육시설 ㅇ 헬싱키 교육부
6일	11.30.(토)	ㅇ 이동 (헬싱키 → 서울)
7일	12.1.(일)	ㅇ 도착 및 해산

Ⅱ. 주요 활동

1 코펜하겐 부모놀이터(Legestue)

□ 방문 개요

○ 기관명 : 베스터브로 도서관&문화의 집(Vesterbro Bibliotek og Kulturhus)

○ 주소 : Lyrskovgade 4, 1758 København, Denmark

○ 일시 : '19.11.26.(화) 10:00 ~ 12:00

○ 면담장소 : 부모놀이터(Legestue) 내 회의실

○ 면담자 : Britt Jakobsen

□ 기관 개요

○ **도서관&문화의집(Bibliotek&Kulturhus) 운영 현황**

- 도서관(Bibliotek)과 문화의집(Kulturhus) 통합형 시설로, 코펜하겐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

- 1층 일반도서관*, 2층 어린이도서관*(어린이도서관 내 부모놀이터**), 3층 문화의집 운영

* 도서관&문화의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되, 운영 인력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 근무(자동 개폐 장치 사용)

** 당초 지하에 위치했으나, 도서관과 문화의집 통합 이후 한 층에서 모든 아동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층 어린이도서관 내부로 이동

- 운영 예산은 전액 코펜하겐 시에서 지원

○ **놀이터(Legestue) 운영 현황**

- 코펜하겐 내 각 자치구의 문화의집(Kulturhus)에서 대부분 놀이터를

운영하고 있으며, 놀이터와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더 많은 아이들을 유입하는데 효과적임.

- 놀이터 운영시간(오전9시~12시) 이후 온라인 사용 예약을 통해 프로그램실로 이용 가능*(저녁 10시까지 이용 가능)

  * 토요일마다 운영되는 율동교실 시간 외에 신청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 가능

- 놀이터 이용 연령 제한은 없으나, 대체로 어린 연령대(영·유아) 아이들이 이용함

  * 부모&자녀 혹은 베이비시터(4명까지 돌봄 가능)가 주로 이용

- 이 외 어린이도서관 내 게임시설(부모와 함께 참여) 구비, 창의교실 운영 등을 통한 방과 후 돌봄 제공

□ 관련 정책 운영 현황 및 시사점

○ **한국형 부모놀이터**(Legestue) **: 작은도서관&공동육아나눔터**

- 코펜하겐 부모놀이터의 사례를 참고하여, 작은도서관(어린이도서관)과 공동육아나눔터의 물리적 통합 운영을 통한 돌봄서비스 이용의 시너지효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볼 수 있음.

○ **돌봄 공간 제공 : 돌봄서비스 - 공동육아나눔터의 연계**

- 공동육아나눔터에 아이돌보미의 **공적 돌봄 공간**으로서의 기능을 추가하여 지역 공동체를 통한 자녀돌봄 지원

□ 관련 사진



도서관 입구



도서관 내부



어린이도서관 내부



라이스튜 내부

2 덴마크 아동교육부(Ministry of Children and Education)

□ 방문 개요

○ 기관명 : 덴마크 아동교육부(Ministry of Children and Education)

○ 일시 : 11.26.(화) 13:30 ~ 15:00

○ 주소 : Frederiksholms Kanal 21 DK-1220 Copenhagen K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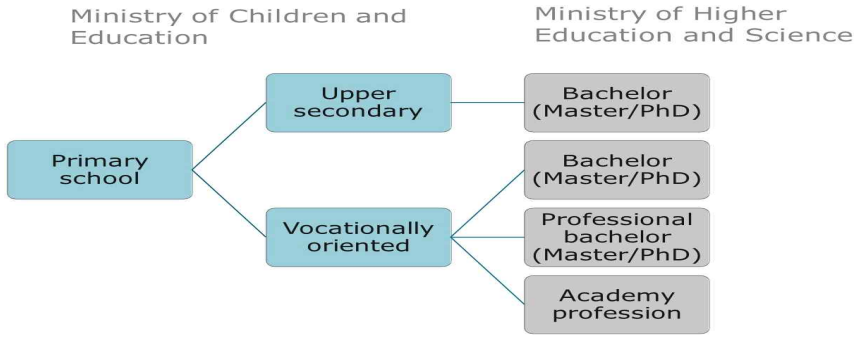
○ 면담자 : Charlotte.Romlund Hansen (국제협력부서),
Louise Solgård Hvas (유아교육돌봄부서)

□ 기관 개요

○ **덴마크 아동 돌봄 정책을 총괄**하는 정부 중앙부처

- **'아동 돌봄'**에 대한 중심가치가 '사회복지'에서 '교육'으로 인식전환되면서, 기존 아동사회부(Ministry of Children & Social Affairs)에서 **아동교육부(Ministry of Children and Education)**로 업무 이관
- 덴마크의 교육 정책은 2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, 고등 교육 정책은 고등교육과학부(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Science)에서, **그 이하 단계의 교육 정책은 아동교육부**에서 **담당**하고 있음

<덴마크 교육 정책 소관 체계>



□ 관련 정책 운영 현황 및 시사점

○ 유아교육돌봄정책(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/ **ECEC**)은 아동교육부 내 '유아교육돌봄부서(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)'에서 담당

- 돌봄 정책(유아/유치원 과정)은 0세~6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함

○ 덴마크는 중앙정부(State), 5개 지역(Regions), 98개의 지방자치단체(Municipalities, 이하 '지자체')로 이루어져 있으며, 지방분권이 활성화되어 있음

- **중앙정부**는 돌봄 시설 운영 및 예산 집행 등에 관한 **가이드라인**을 제공하고 **총괄**하는 **감독관(Supervisor) 역할**을 하며,
- 돌봄 서비스에 대한 **실질적 권한과 책임**은 **지자체**에 있으며, 각 지자체는 예산 편성·집행 및 교육적인 질, 서비스의 구체적 형태 등 **돌봄 서비스의 모든 요소**들을 **해당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관리**함

○ 덴마크의 현(現) 집권당이 추진하는 **아동 관련 계획**의 **주요 목표**는 **'세계에서 아이가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'**이며,

- 이를 위해, 돌봄 교사 증원 및 리더십 향상, 돌봄 교사에 대한 교육, ECEC의 질적 향상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함
- 현재, 돌봄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은 상태이며, 돌봄 인력 중 돌봄 교육학 과정을 완료한 사람은 60%에 불과
- 이에, 시설 등에 적정 돌봄 인력 비율을 법적으로 제정하려고 계획 중이나, 현재 수준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며 계획 중인 법정비율에 맞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함

○ 덴마크에서 **보편적 복지** 시스템으로서의 **돌봄 서비스(ECEC)**는, **'부모들을 위한 사회서비스'**이자 **'아동 자체에 초점을 맞춘 사회교육적 제도'**를 기초로 하고 있음

- 부모들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자격이 주어짐
- 모든 아이들은 6개월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, 1~2세 아이들의 90%, 3~5세 아이들의 97%가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함
- ECEC는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음

구분	Family day-care	Nurseries	Kindergarten	Age-integrated facilities
내용	가정보육	유아원	유치원	연령통합시설
대상 연령	6개월~6세	6개월~3세	3세~6세	6개월~6세

○ 아울러, 덴마크는 OECD 국가 중 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용이 가장 많은 5개국 중 하나이며, 돌봄 서비스 운영비용은 지자체별로 다름

- 지자체는 최소 75%의 비용을 지원하고, 부모는 최대 25%까지 직접 부담, 단 저소득층 등의 경우 최대 100%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음

○ ECEC의 탄력적 운영과 관련,

- 부모들은 공립·사립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, 다른 지자체에 있는 돌봄 시설을 선택할 수도 있는 등 시설 선택 권리가 부모에게 있음
-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대신, 부모가 직접 보육을 하거나 사설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함, 단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모두 지자체에 있으며 중앙정부의 개입은 없음
- 돌봄 시설의 운영시간은 해당 지역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하고, 주당 최대 50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음

○ 이러한 돌봄 시설에서는 시설 목적에 맞게 '돌봄 서비스'만 제공하며, 학부모가 함께하는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음

- Legestue, 지역 도서관 등에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있을 수 있으나, 돌봄 시설에서의 정규 프로그램 또는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음

○ 덴마크에서는 부모들의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정책보다 '돌봄'을 '교육'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그에 적합한 정책으로 개발·운영해나가고 있는데,

- 이는 주 37시간 근무 및 상대적으로 초과근무를 거의 하지 않는 근무환경, 아동이 아플 경우 부모에게 법정 1일 휴가가 부여되는 등 근본적으로 부모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일·가정 양립이 가능한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

□ 관련 사진



아동교육부 전경(게이트21)





면담 장소

3 코펜하겐 아동 문화의 집 (Børnekulturstedet Karens Minde)

□ 방문 개요

○ 기관명 : 코펜하겐 아동 문화의 집 (Børnekulturstedet Karens Minde)

○ 일시 : '19.11.27.(수) 10:00 ~ 11:30

○ 주소 : Wagnersvej 19, 2450 København SV

○ 면담자 : Ditte Marie Størner

□ 기관 개요

○ **(설립 연혁)** 아동에게 일상에서 예술 문화 체험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1994년 '문화의 집' 형태로 설립

* 코펜하겐 시내 총 9개의 문화의집 설립되어 있으며 대부분 도서관 내에 위치

○ **(사업 내용)**

- 아동 연령에 따라 문화, 예술, 체험 전반 프로그램을 제공
- 유치원 · 학교, 지역 문화 시설, 사회 활동가, 지역 주민, 부모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

○ **(이용 대상)** 0세~16세

○ **(이용 시간)** 10시~18시

* 이용 연령, 시즌에 따라 탄력적 운영

○ **(이용 방법)** 사전 인터넷 신청 (이용요금 부과)

○ **(연간 예산)** 5.2억원 (300m Krone)

* 지방비 20%, 기금 조성 80%

○ **(운영 인력)** 팀장1,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1, 팀원 2, 강사 11

* 주 37시간 근로시간 준수

□ 관련 정책 운영 현황 및 시사점

○ **세부 운영 사항**

- **(기획 인력)** 팀장은 운영, 평가, 회계 등 코펜하겐시에 보고하는 행정 전반을 관리하며,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 행사(연극, 워크숍, 축제) 등을 기획함
- **(운영 기획)** 지역의 아동 연령에 따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, 부모가 수시로 의견을 제안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부모의 개입을 중요하게 생각함. 지역의 행사, 축제 등에 참석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지역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운영 중임
- **(운영위원회)** 9명으로 구성된 조합이 기관 운영, 채용, 회계 감사 등을 전반 사항을 결정하고 있음

* 운영위원회 구성 : 문화의집 직원, 도서관 직원, 강사 대표, 아동 문화 활동가, 학교 선생, 부모 등

- **(예산)** 초기 덴마크 문화부, 코펜하겐시 등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으나, 점차 예술 관련 연구 기관, 문화 재단, 학교, 부녀회, 지역 사회와 연대하여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점차 교육을 확대, 지역으로부터 재정 마련하여 지역 특화 돌봄 프로그램 운영 가능
- **(공간)** 공간은 코펜하겐시에서 마련하였고, 운영은 기관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나, 프로그램 추가 운영에 대한 지역의 요청 및 아동수의 참여가 늘어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며 최대한 지역과 연계하여 공간을 발굴, 운영하고 있음

* 문화의집 외에도 체험 공간 및 인근 유치원 · 학교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간을 발굴하고 있음

○ **세부 교육 프로그램**

- **(정규 프로그램)** 연령대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설, 부모, 가족단위, 지역 주민이 함께 참가하는 프로그램 구성 · 운영

* 영아 댄스(3~12개월 대상, 주 1회, 10~11시, 월 3만원), 영유아 체조(3개월~

5세 대상, 주 1회, 12~18시, 월 3만 원), 기타 수업(2학년 이상, 주 1회, 17~18시, 가족 단위 수강, 월 10만 원), 미술(9~10세 대상, 15~17시, 월 3만 원), 동네 합창단(1학년, 주 1회, 16~17시, 부모·지역주민 동반 수강, 월 4만 원), 오케스트라(2학년 이상, 주 1회, 16~17시, 월 4만 원), 바느질(9~15세, 주 1회, 15~18시, 월 2만 원) 등

- **(유치원·학교 연계 프로그램)**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공간 발굴 및 유치원·학교 선생과의 논의를 통해 단체 프로그램 발굴·개설

  * 재생·지속가능 개발(4~5학년 대상 전체 수업, 환경분야 전문가 및 예술가 강사 초빙, 2백만 원), 애니메이션 제작(4~5학년, 50만 원), 미술 프로그램(수시 운영), 요가(유아, 6천 원) 등

- **(지역 연계 프로그램)** 지역의 행사, 축제, 주민 모임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발굴·개설

  * 거리예술축제 연계 미술 프로그램, 부녀회 연계 바느질 프로그램, 레저 클럽 연계 체육 프로그램 등

○ 시사점

- 운영 인력은 관련 분야 석사 학위 보유, 십여 년의 전담 근무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, 지역의 수요 및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가능
- 지역의 행사, 축제 등에 적극 참여하고 인근 유치원·학교와 연계하여 정형화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장소 발굴 가능
-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의 기관 및 문화 재단 등으로부터 펀딩을 받아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재정 운영 가능
-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부모와의 간담회를 마련해, 운영·기획 단계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부모를 적극 개입시켜 부모의 가치관이 반영된 프로그램 개발 가능
-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, 지역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지역 공동체성 확장 가능

□ 관련 사진



4 에스포(핀란드) 부모협동조합 돌봄기관

□ 방문 개요

○ 기관명 : Kuitinmaki 유치원(Kuitinmaki kindergarten)

○ 방문 일시 : 11.29.(금) 10:00 ~ 11:30

○ 장소(주소) : Kuunsåde 6d, 02210 Espoo

○ 면담자 : Sofia Holm(Leader)

□ 기관 개요

○ **(설립배경)** 이 지역 부모들이 당국에 부모협동조합이 운영하도록 하는 모형의 돌봄기관 설립을 건의하여 1974년 설립

○ **(운영특성)** 부모협동조합은 학생대기자 선발, 급식방법, 교사선발, 프로그램 운영방식, 법정공휴일 등을 이외의 휴원일 등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

- 전체 운영에 대한 모든 가이드는 중앙정부, 에스포시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, 부모들이 보육시설 설립과 운영 등의 재원을 분담하지 않음.

  * 모든 부모들의 공식적인 부담은 학생 1인당 분담 289유로임

- 부모참여는 수업에 교사로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방식이 아님. 즉, 모든 직접적인 운영은 엄격한 자격관리를 통해 전문교사와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짐.

○ **(규모 등)** 29명 정원(현원 21명), 장애아 등도 받을 수 있는 기관(inclusive model)으로 운영되고 있음

- (인적구성) 돌봄센터교사1, 유치원교사2, 보모2, 총무1
- (연령반) 1~3세 미만, 3~5세 등 두 개의 연령반으로 구성

- (운영시간) 평일 07:30~17시까지 운영(일정한 루틴을 통해 안정감과 연령반별 융통적 활동 창출)

  * 07:30 정해진 등원시간 없이 자유롭게 등원하여 자유놀이, 08:15부터 아침식사 및 오전돌봄(야외활동 등), 11:15 점심식사, 음악듣기, 휴식, 자유놀이, 14:30 간식제공, 야외활동, 동화읽기 등, 17:00 종료

□ 관련 정책 운영 현황 및 시사점

○ 부모협동조합 돌봄기관에서의 부모참여

- **(개요) 핀란드에서 돌봄시설의 운영권한은 각 시정부가 있고** (이 시설의 경우 에스포시) **시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서 학부모들의 참여와 관여가 많음**

- **(운영위원회)** 원장, 회계, 총무 등 3명을 당연직(최소구성)으로 하고 학부모들이 참여

- **(의사결정구조)**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위원회*에 참여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시설상황, 핀란드나 에스포시 정책에 맞도록 원장(leader)등과 협의하여 의사결정

- **(의사결정내용)** 부모들은 이 시설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자녀를 받을지(장애통합이긴 하나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없음), 어떤 강사를 쓸지, 어떤 간식을 줄지 등 운영 전반에 더욱 관여

  * 기본적인 사업보고 및 회계감사 등은 필수

- **(예 산)** 별도 바자회(쿠키, 극장관람 등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만큼 추가 책정하여 파는 방식) 등을 통해 펀드를 만들고 부모-자녀 캠핑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쓸 수 있음

※ 시정부 운영기관은 보조금 외 별도 회계계정 추가 관리 불가

- **(촉진요소)** 해당 지역은 핀란드 주도인 헬싱키의 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이민자보다는 선주민들이 많아 부모협동조합형태의 돌봄시설 운영을 좀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

  * 면담자의 경우에는 헬싱키시의 경우에 이러한 형태의 돌봄시설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함

- **(부모참여의 성과)** 교사당 학생 수, 부모가 참여하는 캠핑 등 필드트립 등 필요한 교육의 질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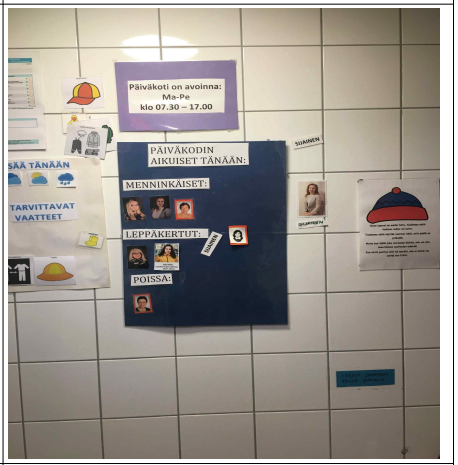
  * 이 기관의 경우에는 3~5세의 학생당 교사비율을 1:7로 하고 있는데 핀란드 관련법에서 1:8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결정

○ 시사점

- 부모참여형 돌봄교육기관은 운영위원회가 보편적인 핀란드의 경우에도 모든 지자체나 지역사회에서 선호되지 않아 지역사회를 활용한 돌봄공동체를 만든다면 부모의 수요와 욕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적합지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
-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공동육아나눔터 내 가족품앗이 활동이 주로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수업을 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맞벌이 가정의 양육자들이 참여하는 데 보이지 않는 장벽존재. 핀란드의 경우처럼 부모들이 운영방식에만 관여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는 별도 영역으로 분리하는 방법 도입 가능
- 지역내 공동체로 구성 및 활용시 돌봄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원과 부모들의 자발적 활동을 장려하는 운영방식 등을 다각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모델 개발 가능

- 중앙정부는 전체적인 공동체 운영의 방향성 제공,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매뉴얼 및 돌봄서비스 질 관리 방안 마련, 지역 및 현장에서는 수요발굴 및 프로그램 지원 등 역할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 가능

□ 관련 사진

<table>
<tr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기관전경</td><td>수업하는 모습</td></tr>
<tr><td>
</td><td>
</td></tr>
<tr><td>아침식사안내(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결정하는)</td><td>교사관련 내용 공지
(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결정하는)</td></tr>
</table>

5 핀란드 헬싱키시 교육부(Education Division)

□ 방문 개요

○ 기관 : 헬싱키시 교육부(Education Division)

○ 일시 : 11.26.(화) 10:00 ~ 11:30

○ 주소 : Toysankatu 2 D, FI-00099 City of Helsinki

○ 면담자 : Marika Kyllonen(Helsinki Education Division, Head of Development Service Unit)

□ 기관 개요

○ **헬싱키시 아동 교육 및 돌봄 정책 총괄 기관**

- **(조직)** 헬싱키시 교육부(Edcation Division)는 헬싱키 시내 아동 교육 및 돌봄에 대한 총괄 기관이며, 아동 생애주기별로 조직 구성,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(교육담당와 돌봄담당 미분리)
- **(역할)** 핀란드는 지방자치분권이 발달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적인 구체적인 교육 및 돌봄 정책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나, 헬싱키는 핀란드 최대 도시이자 수도로서 타 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
- **(정책목표)**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맞벌이를 지원하며,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
- **(정책방향)** 부모측면에서 맞벌이 지원(부·모가 동등한 일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)하기 위해서 부모가 일할 동안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, 아동측면에서 부모의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

○ **아동 교육 체계**

- **(만5세 이전)** 초기 아동기 교육(early childhood education) : 유치원

  * 시립유치원이 대부분이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어교육을 병행한 사설유치원 증가추세

- **(만6세)** 예비 초등학교 교육(pre-primary education) : 학교
- **(만7~16세)** 기본 교육(basic education) : 학교

□ 관련 정책 운영 현황 및 시사점

< 유치원(정규교육) 내 교육 및 돌봄 >

○ **유치원 교육 및 돌봄**

- (신청) 유치원 지원 4개월 전 사전에 유치원에 방문하여 직접 알아볼 수 있고, 1~5지망까지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
- (운영시간) 시간제(4시간) 또는 종일제(5~10시간)로 이용가능하며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함

  * 22시 이후 부모 도착시 아동은 유치원에서 숙박

- (비용) 부모는 최대 290유로/월까지 자부담(소득에 따라 차등)

< 유치원(정규교육) 외 교육 및 돌봄 >

○ **(공공놀이공간, Playground)** 헬싱키시에서 운영하는 공동돌봄공간으로서 아동 누구나 놀이 및 체험 프로그램 등에 무료로 참여 가능 및 점심도 제공하여 아동이 하교* 후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,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 부모 육아휴직 기간동안 인근 지역 부모 간 만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음

  * 일반적으로 하교 시간은 12~13시, 부모 퇴근 시간은 15~7시

- 공공놀이공간*은 대부분 아동이 가정 또는 학교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누구나 신청없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간식을 제공한다는 점이 공공놀이공간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유라고 사료됨

* 헬싱키 69개소, 여름철에는 18세 미만에게 점심식사제공(헬싱키시만)

○ **(아이돌보미, Family Day Care)** 아이돌보미(Nanny)가 개인 또는 그룹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며, 아동 또는 아이돌보미의 가정, 시에서 제공하는 별도 장소(헬싱키내 57개소)에서 돌봄

* 헬싱키시 정부가 아이돌보미 고용 및 가정간 매칭(2~4가정) 제공

○ **(방과전·후활동, Mornig&Afternoon Activity)** 방과전 프로그램은 학교 내에서 무료로 제공(장애아동 1~4학년, 일반아동 1~2학년 대상)하고, 방과후 프로그램*은 시정부, 사설기관, 교회, 비영리기관 등에서 운영하며, 소정의 부모 자부담(100~120유로/월, 월~금요일, 간식포함)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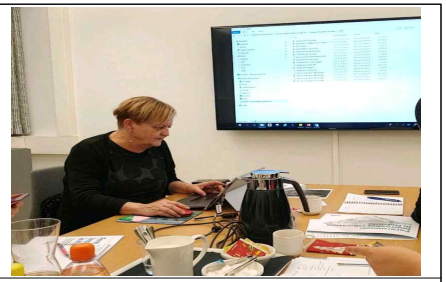
* 운영 예시 : 시정부에서 사설 체육관 섭외하여 프로그램 위탁 등

○ **(가정양육, Home Care)** 부모의 가정양육시 만 3세까지 338~784유로/월 지원금 지급(소득에 따라 차등)

* 법정 육아휴직 기간 : 엄마 9개월, 아빠 20주

□ 관련 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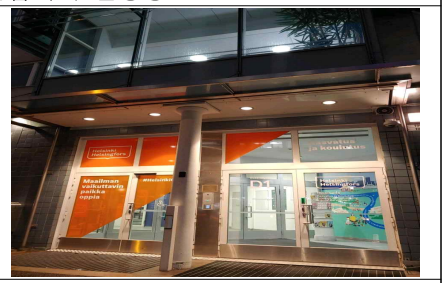




헬싱키시 교육·돌봄체계 설명중



헬싱키시 교육부 1층 로비 전경



헬싱키시 교육부 입구

Ⅲ. 종합평가 및 향후전망

1 덴마크(중앙정부)와 헬싱키(지방자치단체)의 돌봄정책

□ 돌봄정책에서의 평가

○ (공통점) 북유럽국가로서 공통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역할구분

- 중앙정부는 전반적인 국가의 교육체계 정비, 유치원을 비롯한 교육기관의 교사 등 전문성 관리 등 법, 장기계획, 대학교육(전문가양성) 등의 업무에 초점
- 구체적인 교육기관 관리, 돌봄서비스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임

○ 중앙정부 정책으로서 덴마크의 경우 '사회복지'에서 '교육'으로 아동돌봄의 관점이 변화되었고 이는 전반적으로 아동간 차별없는 권리로서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었음

○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의 경우는 전반적인 국가정책을 따르면서도 국제적인 도시, 맞벌이가 많은 도시로서 도시 특색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었음

-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이돌봄 서비스인 Family Day Care, '학교과 지역사회를 결합'한 지역아동센터나 '간식제공 등을 통한 초등생 돌봄모형'인 다함께 돌봄센터 모형인 Morning&Afternoon Acitivity 등이 있었음

2 주요 방문 기관 서비스 평가

□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서비스 기관 방문 평가

○ **(공간을 통한 서비스)** 코펜하겐(라이스튜,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), 헬싱키(공공놀이터) 등 자연스럽게 부모, 아동, 아이돌보미 등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양국이 모두 공통적으로 보유

* 라이스튜, 공동놀이터는 우리나라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장 유사,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장 유사

○ **(타시설과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)** 코펜하겐(라이스튜,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)은 모두 "도서관"을 매개로 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생활SOC 복합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동육아나눔터나 가족센터의 운영의 시너지가 기대됨

○ **(효율적 운영)** 두 기관(라이스튜, 아동청소년 문화의 집) 모두 운영인력이 1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음. 37시간 근무제로 인해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들이나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음.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강사들이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모두 총괄하고 있었음

○ **(운영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)** 기관 운영방식을 모두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구조임. 따라서 부모가 참여한다고 해도 직접 강사, 자원봉사 등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음

-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, 예산, 회계감사 등 비영리기관으로서의 기본 기능을 하지만 그 기관과 관련된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있었음

※ 우리나라도 모든 비영리기관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좀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.

3 향후 전망

○ 52시간제 확대 등 이용자와 가족관련 서비스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변함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이용자를 관리하고 보살피는 지금과 같은 방식보다는 좀더 주민주도형으로 나아갈 것을 대비 필요

- 시설관리, 안전, 시민의식 등 이를 위한 제반문화와 설비에 대한 준비 필요

- 실적관리 완화 등 성과관리 방법에 대한 고민을 통해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방식 검토 필요

○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사와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질 관리를 명확히 하고 부모들은 좀 더 민주적이고 책무성 있는 의사결정 구조에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 모형 개발 가능

- 모든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의 이주가 적거나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 적극 발굴 필요

- 주민의 자발성은 운영방식으로, 돌봄노동에 대해서는 명확한 비용 지급 등의 이원화된 운영방식 적용검토

○ 가족센터 생활SOC 사업을 통한 다양한 시설과의 적극적 연계

-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소통공간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있음

- 이와 더불어 공동육아나눔터 필수시설화, 작은 도서관 혹은 다함께 돌봄센터 등과의 결합을 통해서 지역 내 돌봄공동체로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